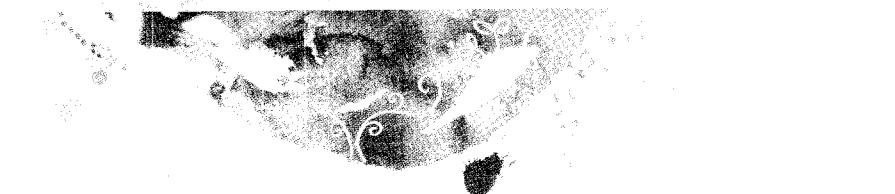


새로운 조경수 (수양겹벚나무)

과명 / 학명 : 장미과 / (*Prunus verecunda* var.*pendula*)



김종열 | 사무국장
(사)한국조경수협회 경남중부지회

1. 종류와 생육특성

벗나무류의 종류는 전국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세계적으로 약 200여종이 생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중에서 수양겹벚나무는 꽃이 아름답고 개화기간이 일반 벚나무류에 비해 약 2주간이나 길어 관상 가치가 뛰어난 낙엽활엽교목으로 일반적인 교목류에 비해 가지가 길게 늘어진 모습이 보는 이로 하여금 시선을 끌게 되고 70년대에 많이 있었던 가로수인 수양버들을 연상케 하여 약한 바람에도 흔들리는 모습 또한 장관을 연출하는 전망 좋은 새로운 조경수로 광광을 받고 있는 인기 수종임.

(표1) 벚나무류의 개화시기를 비교

수종	율벗나무	왕벗나무	수양벗나무	겹벗나무	수양겹벗나무
개화기간	4. 9 ~ 4. 21	4. 10 ~ 4. 17	4. 11 ~ 4. 19	4. 16 ~ 5. 3	4. 13 ~ 5. 5
개화일수	13일	8일	9일	18일	23일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개화기간이 일반 벚나무에 비해 약 2주간이나 길어 개화 시의 아름다움은 감히 말로써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환상적이다. 또한 내한성이 강한 양수로써 전국 어디서나 다소 습하고 평탄한 비옥토에서 생육이 왕성하며 생장이 매우 빠르고 대기오염에 대한 적응성도 강하여 가로수로써의 효용가치가 아주 높은 인기 유망수종이다.

2. 조경수로써의 활용가치

일반 벚나무의 경우 꽃이 위로 향하는 경향이 있어 아래로 향하는 수양형에 비하여 보는 각도에 따라 같은 수의 꽃이라 하여도 아래로 향한 꽃이 많은 느낌을 주었으며 직선적인 것보다 수양형이 사람에게 있어 스트레스를 덜주고 심리적 안정감 준다는 사실에 비추어 보아 수양겸벚나무도 사람들에게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라 나무의 수형에 있어서도 휘영청 늘어진 가지의 모습이 아름다운 아가씨의 긴머리결에 비유할 수 있는 관상가치가 뛰어난 수종이다

3. 번식 및 양묘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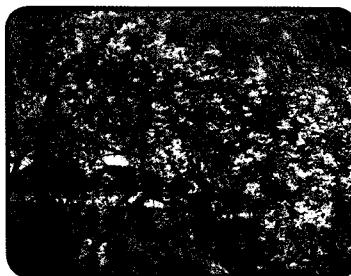
일반 벚나무류는 실생으로 번식 하지만 수양겸벚나무는 반드시 접목을 하여 그 수종이 가지고 있는 우수한 유전적 특성이 이어지도록 해야 하기 때문에 접목묘로 증식 하는 것이 좋다. 특히 수양형인 벚나무는 고접을 필요한 높이에 실시하여 수양형을 감상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2) 수종별 접목 활착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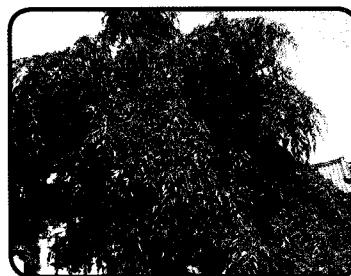
수 종	활착율(%)	접목장소 / 시기
올벚나무	24	노지 / 3월
겹벚나무	43	노지 / 3월
수양벚나무	47	노지 / 3월
왕벚나무	62	노지 / 3월
수양겸벚나무	64	노지 / 3월
수양겸벚나무	83	온실 / 1월

위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겨울 온실에서 접목하는 것이 봄에 노지에서 접목하는 것에 비해 활착율이 훨씬 높았다.

이를 위해서는 봄에 묘목을 $20\text{cm} \times 20\text{cm}$ 간격으로 파종하여 비배하였다가 가을에 잎이 떨어진 후 비닐하우스를 설치하여 보온 후 1~2월에 고접을 실시한다.



4월 개화되어 늘어진 모습



5월 하순의 늘어진 수양



겹꽃송이의 모습



개화되어 늘어진 모습

또한 묘목준비를 위해서는 6월 중순경에 완숙된 종자를 채취하여 과육을 제거 후 그늘에 말려 보관 하였다가 7월경에 직파하거나 봄에 파종할 때는 모래와 종자를 2:1의 비율로 석어 배수가 양호한 깨끗한 모래에 건수가 스며들어 가지 않도록 유의하고 특히 땅속의 두더지나 쥐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철망으로 씨앗을 보호 해야한다.

- ☞ 참고문헌 박현순, 이정호, 김홍운 (2000) 새로운 조경수 수양겸벚나무 육성
이정호, 안청녕, 박형순 (2000) 새로운 조경수 벚나무류 유량품종의 꽃의 형태적 특성